



MILICHECK

김민준 복무 기록집

2026년 3월 2일 — 2027년 8월 31일 · 육군 548일
기록 412편 · 사진 1,038장 · 함께 쓴 사람 6명

김민준 복무 기록집

2026 — 2027 · 어머니 · 아버지 · 여동생 · 할머니 · 이모 · 사촌형 씀

이 기록집에 대하여

이 기록은 다듬지 않았습니^다. 회사는 낱싸순으로 배열했을 뿐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^다. 맞춤법도 손대지 않았고 사진도 올린 그대로입니^다.

기록마다 낱싸와 쓴 사람을 함께 적었습니^다. 쓴 사람이 24시간 안에 스스로 정정한 기록은 정정된 내용만 실었습니^다.

「전역 후 공개」 표시가 있는 기록

복무 기간 중에는 쓴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기록입니^다. 다른 가족에게는 누가 언제 남겼^다는 사실만 보였고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^다. 전역 예정일이 지나 모두에게 열렸습니^다. 쓴 사람은 언젠가 공개된^다는 것을 알고 적었습니^다.

고치면 드러납니^다

기록이 저장될 때마다 그 내용으로 고유한 값을 만들어 앞선 기록의 값과 엮어 두었습니^다. 나중에 어느 한 편을 고치면 그 뒤의 값이 모두 어긋나므로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납니^다. 회사가 고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참가지입니^다.

예시입니^다. 실제 회원의 기록이 아니며, 완성본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견본입니^다. 사람 이름과 내용은 지어낸 것이고, 사진은 임의로 넣은 것입니^다.

차례

01 · 입영과 훈련	1
들어보내던 날	1
훈련소의 다섯 주	31
수료식	48
02 · 자대 배치	55
새 주소	55
첫 면회	88
03 · 첫 휴가	127
여름, 열흘	127
민준이 없이 맞는 첫 성탄	168
04 · 복무의 한가운데	215
두 번째 겨울	215
할머니의 수술	262
05 · 전역을 앞두고	312
말년 휴가	312
잠겨 있던 기록이 열리던 날	400

01

입영과 훈련

2026년 3월 2일 — 4월 11일 · 85편

들여보내던 날

2026년 3월 2일 (월) · 논산훈련소

2026년 3월 2일 (월)

어머니

민준이 방 청소를 했다. 정리정돈이라고는 모르는 애가 꽤 신경 써서 방 청소를 해놨네. 군대 간다고 철들었나? 당분간 방 청소할 일 하나 줄었다 ㅎ



2026. 3. 2. · 어머니 · 입대 기념사진

전역 후 공개

알겠다. 너도 오래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 방을 정리하고 갔구나. 애써 웃고 담담한 척하던 것도 엄마에겐 다 보여. 건강하게 돌아오렴. 벌써 보고 싶다.

부대 근처 식당 진짜 문제다! 우리 집 육식공룡이 고기를 남길 정도면 말 다 했다.
수료식 날, 이모가 제대로 함 보여준다!



2026. 3. 2. · 이모 · 민준이가 남긴 불고기

전역 후 공개

「이모, 나 배불러..」 네가 고기 먹다 그런 소리를 다 하고... 밥이 안 넘어간 거 이모는 알지. 억지로 웃는 것도 다 보였고. 오늘은 모른 척 해줄게.

민선이가 대신 써준다. 민준아, 할미다. 밥 잘 묵고, 아프면 참지 말고 윗사람들에게 말해라.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한다.. 윗사람 말 잘 듣고. 오늘 내가 이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.

니가 듣기 싫어해도 할미는 너 제대할 때까지 계속 할거다.

2026년 3월 2일 (월)

여동생

고속도로 왜 이렇게 막혀? 내 소중한 주말 돌려줘~ㅎ

사진 한 장 찍는데 엄마는 옷 만지고, 이모는 뭐 더 먹이려고 하고, 할머니는 밥 잘 먹으란 얘기 하고 또 하고 ㅎ 오빠, 군대 가서 사람 좀 돼서 와라.

P.S. PX 가성비 화장품 잊지 마셈.



2026. 3. 2. · 여동생 · 입소 직전

전역 후 공개

집에 와서 사진 다시 봤는데 좀 찐하긴 하다. 다들 웃고 있는데 왜 사진 속에선 전부 슬퍼?

뭐... 무사히 있다 와라.

2026년 3월 2일 (월)

사촌형

나 원래 이런 거 안 씬. 대신 면회 1회 보장한다 ㅋ

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. 살아서(?) 보자.

민준아, 꺾어보기 전이 두려운 거지 막상 부딪치면 별것 아니다.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. 파이팅!



2026. 3. 2. · 아버지

훈련소의 다섯 주

2026년 4월 4일 (토) — 4월 5일 (일)

2026년 4월 4일 (토)

어머니

전화만 하면 「나 잘 있어!」를 왜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지 ㅎ

그리고 있으니 유치원 때 「나비야~ 나비야~」 부르던 게 생각난다. 그때나 지금이나 넌 참 낙천적이다.

오늘 저녁은 가족 외식. 네 몫까지 먹어주마!



유치원 시절 · 어머니가 다시 꺼내 올림

전역 후 공개

소내 신검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귀가할 수도 있었다는 말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. 차라리 돌아왔으면 싶다가도, 다시 입대 날짜 기다릴 너를 생각하면 잘 버틴 게 다행이고...

전화로 「잘 있다」는 말을 들을수록 왜 나는 자꾸 목소리 뒤를 듣게 되는지 모르겠다.

2026년 4월 4일 (토)

할머니

민준아, 할미다. 이번에도 민선이가 써준다.

힘들제? 참을 인 세 번이면 못 할 게 없다. 참고 또 참아라.

할미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니 이름 올리고 매일 기도한다. 밥 잘 묵고.

2026년 4월 5일 (일)

아버지

이제 슬슬 몸도 마음도 적응해갈 때다. 겪기 전이 두려운 거지, 막상 대면하면 큰 것 아니다.

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은 지나야 할 통과 의례다. 마음도 한층 커질 거다. 잘 버텨! 파이팅!



2026. 4. 5. · 아버지

이번 주 화생방인가?

콧물 질질, 눈물 줄줄, 바닥 박박 ㅋㅋㅋ 어머니 은혜 부를 때 눈물 폭발? 개꿀맛~

아, 그리고 내가 입대 날 약속한 거 기억함. 면회 1회 아직 유효.



화생방 훈련 · 사촌형이 옮겨 온 사진

전역 후 공개

입대 몇 주 전 여친 정리하고 소주 나발 불던 놈이 첫날 밤 내무반 천장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선하다.

근데 소대에 좀 굵든 동기 하나 잘 챙겨준다면? 힘들 때 남 챙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.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. 나머지는 그냥 버텨. 국방부 시계 잘 가고 있다.

수료식

2026년 4월 11일 (토)

2026년 4월 11일 (토)

이모

준비해 가길 잘했다! 그렇게 먹어주니 이모가 다 배부르네. 입대 날 불고기 남기던
놈 맞아? ㅎㅎ

군대 밥 잘 나온다더니 그래도 엄마·이모 밥하고는 다르지? 싹 비운 냄비 인증!

전역 후 공개

까맣게 타서 베레모 쓰고 경례하는데 순간 낯선 청년인 줄 알았다. 불과 몇 주인
데 훈련소가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네. 잘 먹어서 안심하면서도 문득 겁이 났다.

제대하면 옛날 그 장난꾸러기 민준이로 돌아오긴 할까?

2026년 4월 11일 (토)

아버지

소년이 남자가 되어 돌아왔구나. 건강하게 훈련소 과정 잘 마쳐줘서 고맙다.

수료 축하한다. 이제 진짜 군 생활 시작이네. 잘해라.

오빠 방에 버려져 있던 대형 곰인형, 내 방으로 이사 완료.

개이득 득템 ㅋㅋㅋ 수료 기념으로 돌려줄 생각 없음.



2026. 4. 11. · 여동생 · 오빠 방

전역 후 공개

입대 전날 밤 은지 언니 사진 지우면서 혼자 훌쩍거리던 거 다 봤음.

오늘도 펜션에서 갈비 먹다 말고 슬쩍슬쩍 인스타 보는 것 같더라. 잊어라, 잊어! 쌍팔년도 신파냐. 촌스러워 못 봐주겠다.

...근데 곰인형은 당분간 안 버릴게.

그래. 군대 가기 전에 애인을 한 서너 명 만들어놓고 갔어야지 임마! 이미 늦었다
ㅋㅋㅋ

이제 지독한 외로움이 널 성장시킬 것이다. 자대 가면 훈련소가 그리워질 거다. 멘
탈 잘 챙겨라 신병.

P.S. 면회 1회권 아직 안 썼다.



2026. 4. 11. · 사촌형

전역 후 공개

은지 인스타 몰래 검색하는 거 다 봤다, 이놈아.

수료식 날 전여친 생각하면서 눈물 젖은 갈비 찢는 건 전 군인 공통인가 보다.
나도 그랬다. 그러니까 쪽팔려하지 마라.

새 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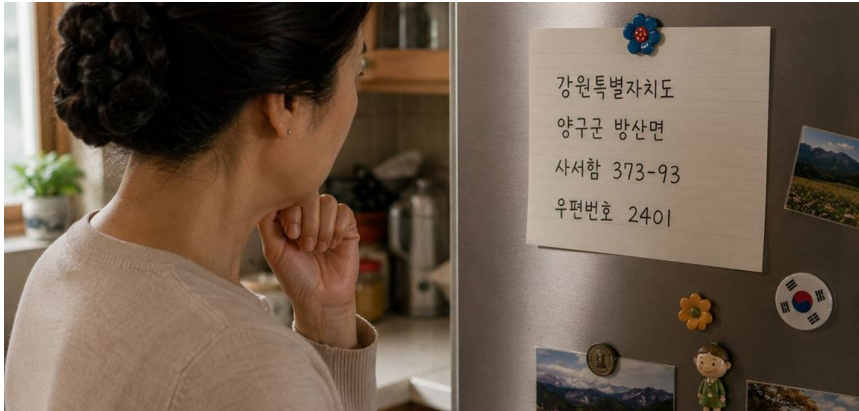
2026년 4월 14일 (화) — 4월 26일 (일)

2026년 4월 14일 (화)

어머니

드디어 자대배치! 주소부터 냉장고에 붙였다.

전화 목소리는 씩씩하던데 「훈련소가 편했다」는 말이 한켠에 걸리네 ㅎㅎ
선임들한테 예뻐 받고, 밥 잘 먹고, 눈치껏 잘해. 우리 아들은 잘할 거라 믿는다!



2026. 4. 14. · 어머니 · 냉장고에 붙인 자대 주소

전역 후 공개

전화 끊기 전에 「엄마, 나 괜찮아」를 세 번이나 하더라.

내가 괜찮냐고 세 번이나 물었으니까 그랬겠지. 다음부터는 한 번만 물어봐야겠다.

2026년 4월 15일 (수)

여동생

오빠 자대배치 기념. 곰돌이 오늘부터 민준 대리근무 들어감.

근무태도 매우 우수. 말 잘 들음. 방 안 어지럽히지 않음. 현재까지 오빠보다 우수함 ㅋㅋㅋ



2026. 4. 15. · 여동생

2026년 4월 14일 (화)

아버지

훈련소와 자대는 다르다. 처음에는 누구나 긴장한다.

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배우고, 모르면 묻고, 맡은 일 정확히 해라. 조직생활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.

군인 택배 준비 완료! 언니가 너무 많다고 반을 빼라는데 무슨 소리?

민준이 혼자 먹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. 선임이고 동기고 다 나눠 먹어라. 이모표 사회생활 지원물자 출동!



2026. 4. 16. · 이모

전역 후 공개

먹을 거라도 보내주면 내가 뭐라도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.

사실 네가 필요한 게 과자인지, 그냥 집인지 이모도 안다.

민준아, 할머니다. 자대라는 데 갔다며. 거기가 훈련소보다 더 힘들다 카더라.

할미가 부처님한테 니 새 주소도 알려줬다. 주소 바뀌었다고 기도 못 찾아갈까 봐. 밥 잘 먹어라.

면회 1회권 사용 완료. 약속 지켰다 ㅋㅋㅋ

그런데 이 새끼가 나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「형, 뭐 사왔어?」 역시 군대 적응 잘하고 있음.



2026. 4. 26. · 사촌형 · 첫 면회

전역 후 공개

갈 때는 「잘 있어라」 하고 웃었는데 차 타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. 훈련소 때보다 말수가 확 줄었다.

뭔 일 있냐고 물으니까 「아무 일도 없어. 그냥 아직 긴장돼.」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린다.

군대에서 진짜 힘들 때는 꼭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더라. 매일 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. 그래도 오늘 얼굴 봤으니까 됐다.

절에서 부적을 받아왔다. 니 이름을 적어 달라 했다.

택배에 넣어 보낸다. 몸에 지니고 있어라.



2026. 4. 20. · 할머니

이 견본에서는 중간 384쪽을 떨어냈습니다.
실제 완성본에는 남은 기록 385편과 사진이 이어집니다.

잠겨 있던 기록이 열리던 날

2027년 8월 31일 (화)

어머니

오전 9시 40분, 위병소 앞에서 기다렸다. 오백사십팔일만이다.

집에 도착하여 민준이에게 앨범을 건넸다. 민준이가 그동안 잠겨 있던 기록들을 천천히 오래도록 보았다.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. 다 보고 나서 나에게 「엄마, 나 괜찮았어」라고 했다. 안아주었다. 민준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으로 돌아왔다.



2027. 8. 31. · 어머니

기록을 마치며

입영	2026년 3월 2일
전역	2027년 8월 31일
복무	548일
기록	412편 (「전역 후 공개」 96편)
사진	1,038장
함께 쓴 사람	6명

어머니 · 아버지 · 여동생 · 할머니 · 이모 · 사촌형

이 기록은 복무 기간 동안 김민준 님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가족은 그것을 알고 적었습니다.

M I L I C H E C K

이 기록집은 밀리체크에서 만든 완성본입니다. 기록과
사진은 가족이 남긴 것이며, 회사는 날짜순으로 배열했
을 뿐 고치지 않았습니다.